

# 정보활용의 실제 알리는 책들 인기핀다

짧은 시간 적은 노력으로 필요한 것 찾는 데 도움 줘...「신문소프트」는 무려 22쇄나

정보의 홍수로 인해 지식의 축적량이 5년마다 두배씩 증가하는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정보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혹자는 “쏟아지는 정보를 활용할 줄 아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때가 코앞에 닥쳤다”고 강조한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도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넘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소화하는 사람이 미래의 지배층을 이루며, 사회의 동인이 정치권에서 정보 채널이 많은 언론계로 전이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도 정보화 시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신간도서가 연간 3만종 가까이 출판되고, 급속도로 늘어나는 각종 매체가 쏟아내는 정보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양산되는 정보의 활용법을 다룬 책들이 출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짧은 시간과 노력으로 정확히 찾아 깊숙하게 쓰개끔 도움을 주는 대중적 정보활용서 출판의 시발점을 제공한 책은 91년 초판이 발행된 「신문소프트」(강성기 외, 정보성), 초판만 22쇄를 낼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이 책의 제목은 “신문을 읽는 소프트웨어”란 뜻으로 신문독서법을 수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출판사명을 두박으로 바꿔 낸 개정판은 초판과 달리 93년 1월을 기준으로 「일간·주간 지면구성표」를 실었으며, 신문광고·출판정보·상품정보를 통해 사회의식의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요령을 추가해 실었다. 구성을 보면 ‘남북한 관계기사에서 사실과 왜곡을 가려내는 법’의 경우 신문별 북한관계기사 비중

쏟아지는 정보의 수집과 정리의  
요령을 일러주는 ‘정보 활용서’의  
출판이 점차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제분야에 국한된  
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여러 분야로 확산될 전망을 낳고,  
있으며, 정보를 다루는 요령도  
점차 다양하게 개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과 고정란을 도표로 작성해 신고 있으며, 왜곡되거나 오보된 사례를 들어 진위를 가리는 눈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신문소프트」 이후 출판된 이런 부류의 책들은 ‘각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특히 경제정보를 소재로 하는 경향이 짙다. 아무래도 경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에 비해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복잡한 수치로 표기되는 경제정보의 특성상 그런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기사 읽는 법」(시사경제연구회, 거름) 「경제정보 소프트」(이상영 외, 의암출판) 「경제기사 소프트」(곽해선, 사계절) 등이 ‘경제’와 ‘소프트’가 결합된 책들.

경제 기사를 읽을 때의 주의사항으로, 경제 기사에도 주관이 들어있음을 감안하고 숫자는 바르게 읽어야 한다는 등의 조언과 함께 국내 경제의 흐름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경기 전망기



정보를 어떻게 요령껏 활용할 것인가를 다룬 정보서들.

사 독해법과 경기 동향지수를 파악하는 요령 등을 세부항목에 담은 것이 「경제기사 읽는 법」. 한편 경제관련 상식과 독해테크닉을 겸한 「경제기사 소프트」는 비즈니스 컨설팅 전문가인 저자가 증권 환율 상품시세 금융 물가 경기 관련 기사를 통해 경제 기사를 직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맞춘 책으로 읽힌다.

원하는 정보를 가장 경제적으로 얻는 노하우는 현대인들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한 「경제정보 소프트」는 이상의 경제관련 정보활용서들과 다소 차이점을 보여준다. 5부로 나뉘어진 이 책에서 공저자들은 우선 경제정보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정보를 찾는 법과 활용법은 물론 경제정보를 다루는 기관과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하고, 경제정보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목록화해 수록했다.

정보의 활용법을 다룬다기보다 정보가 물려 있는 곳과 특정 분야의 정보만을 모아 엮은 책들도 몇몇 선보이고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과 이용요령을 다룬 「은행 소프트 93」과 「93 비즈니스 정보백과」 「정보방망이」가 바로 그런 책들이다. 「정보방망이」는 문화 예술 교양 등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17개 항목에 나눠 실고 있으며, 「93 비즈니스 정보백과」는 경제 자료와 정부통계 및 생활정보 등 회사원들의 궁금증을 덜어줄 정보를 망라하고 있는 책. 이밖에도 정보의 기록과 정리를 돕는 「비즈니스 정보, 만들고 쓰는 법」(편집부, 두박) 「정보를 3배로 활용하는 知的 메모술」(増田剛己,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있다.

— 최태원 기자

앤 밴크로프트 / 양역관 옮김 / 6,500원

## 20세기의 신비사상가들

〈나〉는 누구인가를 일깨우는 신비사상가 15인의 삶과 가르침



라마나 마하리쉬, 크리슈나무르티, 테야르 드 샤르댕, 엘런 왓츠, 구르지에프, 초갑 트롱빠, 마틴 부버, 루돌프 슈타이너, 카스타네다, 울더스 헉슬리, 마더 테레사, 다이온 포춘, 토머스 머턴, 팍 수부, 매허 바바. - 이들 15인의 성자와 신비가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르침의 핵심과 압축된 전기로 구성된 20세기의 정신세계 조감도.

정신세계사에서  
어떤 책이 새로 나왔을까?

정신세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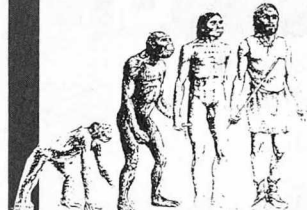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정신세계 전문  
「책방 정신세계」 741-7033(통신판매회원제 운영)

헬렌 피셔 / 박매영 옮김 / 6,000원

## 성의 계약

인간의 진화를 보는 새로운 관점

“당신은 대단한 부자인가? 유능한 커리어 우먼인가? 촉망받는 수재인가? 하지만 그런 것은 자연계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나 당신이 섹시하다면 당신은 적자생존에 성공할 진화의 주역이다”



— ‘성의 계약(sex contract)’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 인간의 성행동, 가족, 사회조직, 언어, 감정의 기원. 여성 중심의 새로운 인류 진화론.